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개정 추진

### 도교육청, “교육현장의 의견 반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9 전북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8년 방과후학교 업무를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2년 후인 2010년부터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길라잡이 보급을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그간 간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고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방과후학교 개정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부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을 전북형에 맞게 수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자치와 학교 자율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 방과후학교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용을 정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영역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16명을 추천받아 TF팀을 꾸렸으며 지난 6일 1차 편집 회의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게 된다.

2019년도 도교육청의 방향과 목표

를 반영해 전북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와 운영계획을 합권으로 발간해 11월 초 각 학교에 3권씩 배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매뉴얼과 공통기준을 마련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무엇보다 방과후학교 현안 문제 및 대안을 반영해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남 육아휴직 대기업 쏠림 중소 근로자는 29% 불과

전체 남성육아휴직자 중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가 71%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1만4735명으로 전년(9681명)에 비해 5054명(52.2%) 늘었다.

이 중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70.7%(1만 414명)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29.3%(4321명)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31.1%보다 낮아진 것이다.

임금별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통상임금 기준 150만원 미만 구간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16.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300만~349만원 구간은 89.3%, 350만원 이상 구간은 76.9% 늘어났다.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 노동자 10명 중 8~9명이 중소기업 종사자인데 육아휴직 비율은 거꾸로 대기업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 일수록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노랗게 익어가는 호남평야

최근 항공에서 바라본 김제시 호남평야가 가을을 맞이한 듯 노랗게 익어가고 있다. (사진=전북사진기자협회 제공)

## 전북대 총장선거 '10월 29일' 확정... 내달 14일부터 후보 등록

전북대 총장선거가 당초 예정일보다 18일 늦어진 오는 10월 29일로 최종 확정됐다.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31일간, 후보자 등록은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으로 변경됐다.

당초 전북대 총장 선거일은 10월 11일이었지만, 총장 임자가 6명이 선거 규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공정성과 절차적 합법성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 바뀌게 됐다. 이에 총추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10월 26일 안을 도출했으며 이후 입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29일로 최종 확정했다.

이 같은 일정 변경은 입지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입후보 예정자로는 이남호 현 총장과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3명을 대상으로 2차 투

표를 하며, 2차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 2명이 3차 투표를 치르게 된다.

이와 함께 총추위는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직접 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는 모바일 투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교원의 경우에도 미리 신청할 경우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은성 기자

## “교육의 기본 지키며 학과 발전 도모”

###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학과평가서 중상위 링크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국어국문학과가 전국대학 인문·사회계 학과 평가에서 중상위 그룹에 링크됐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일보에서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63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평가는 교수연구 및 학생 교육 부문으로 나눠 교수당 국제 및 국내 논문, 국제 및 국내논문 피인용, 교수당 저·역서, 교수당 학생 수, 등록금 대비 장학금, 현장실습 참여율, 취업률 등 14개 지표를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자료와 한국연구재단 교수연구실적 자료 등을 활용해 이루어졌다.

1952년 설립돼 66년의 역사를 이어온 원광대 국어국문학과는 우리의 언어와 문학을 대상으로 고유 문화의 가치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학문적으로 탐구하면서 윤홍길, 양귀자, 박범신, 안도현 등 우리나라 문단의 거목을 배출해 학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동아시아 연계 전공을 통해 국어국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전임 교원의 언론사 고정보고 등을 통해 우리말의 뜻을 살리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학과장 최경봉 교수는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전임교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학과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며, “인문학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원광대 국어국문학과는 연구와 교육의 기본을 지키면서 학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국민 56% “북한은 대화와 타협 상대”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발표 성인 1200명 중 60% “통일 필요하다” 답변 통일 시점엔 '10년 내 단기' 응답자가 32%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정삼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북한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1200명 가운데 59.8%가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한 긍정 응답으로는 지난 10년 이래 최대치다.

조사는 7월1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한국 꺾임통을 통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올 들어 급변하고 있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북한이 '대화 또는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전체 55.7%로 전년 대비 2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지위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자 비율도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71.8%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또 통일이 가능한 시점을 '10년 이내'의 단기로 보는 응답자가 31.5%로 종전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종전 대비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제시했다.

주변국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46.2%는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중국을 꼽았던 반면 북한은 32.4%를 기록해 2위로 떨어졌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65.6%가 '매우 또는 다소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여 역대 조사 이래로 가장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2일 서울 관악구 교내 아시아연구소 영인홀에서 '2018 통일의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 학술대회를 열고 면접 조사 결과 분석과 분야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